광주전남신도회 지용현 회장 선임

"광주전남지역 불교계의 화합과 단합에 앞장서겠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신도들을 대표하는 신임회장에 지용현 회장이 선임됐다.

지용현 신임회장은 "전래된 지 100년 된 타종교는 벌써 자신의 문화를 발굴하기 시작한다"면서 "광주전남신도회가 앞장서 한국불교의 가치를 발견하고, 일반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법회는 4월 16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4층에서 봉행된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초청법회와 문화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취임법회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와 전남불교신도회가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원융화쟁회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관한다.

한편 광주전남신도회는 3월 24일 신임 신도회 구성과 지역 현안, 협력사업을 논의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남 최초 국제불교문화 박람회

4월 15~18일 광주컨벤션센터… 사찰 · 단체 · 기업 교류의 장

호남지역 최초로 빛고을 광주에서 전통 불교문화를 소개하고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박람회가 개최된다.

4월 15~18일 광주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열리는 '2010국제불교문화박람회(INBEX2010)'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문화의 공존'을 주제로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100여 업체가 150개 부스를 통해 호남지역 불교문화와 산업, 사찰문화, 친환경, 웰빙산업 등을 소개한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 외 사찰과 불교관련업체 및 기관 · 자치단체가 만나는 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불교문화산업전시관에는 △사찰건축, 리모델링, 석재, 기와, 불교조각, 불상, 범종, 탱화, 인등, 불전함 등 불사용품과 △불교서적, 음반, 연등 염주, 향꽂이, 향, 법복, 생활한복, 가방, 방석, 신발, 모자 등 불교생활용품 △팬시용품, 공예용품, 차, 다기, 다구, 섬유 등 불교문화상품이 전시된다.

각종 차 등 건강식품, 납골당, 납골함 등 불교장례 관련 용품과 불교의상 전시 및 패션쇼, 범패 · 법고 시연, 불교무예 시범, 전통차 시연, 사찰음식 전시 및 시식 등 문화 행사도 마련됐다.

호남지역 4본사주지협의회 회장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은 "이번 박람회는 불교산업 교류 및 발전, 사찰운영, 포교전략을 위한 정보제공의 장이 될 것"이라며 "호남의 대찰과 주요사찰들이 불교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스님은 "우수한 전통문화와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지역의 문화산업박람회로 자리매김할 것" 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하는 박철희 엑스퍼트 대표는 "한국불교는 전통문화가 잘 보존돼 있고 문화적 콘텐츠가 풍부하다"며 "박람회는 지역사찰과 불교단체, 불교용품 및 산업들을 신도들과 일반인에게 알리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사찰이 지역과 연대해 지역문화와 경제에 공헌해야 한다"며 "2012년 여수박람회와 연계해 불교계 자산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지역으로 4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금산사, 대흥사, 백양사, 선운사, 송광사, 화엄사 등에서 사찰체험관을 설치하고 사찰홍보 및 템플스테이를 직접 소개한다.

한편 박람회는 광주불교방송, 불교신문 광주 · 전남지사, (주)엑스퍼드가 주최하고 금산사, 대흥사, 백양사, 선운사, 송광사, 화엄사, 여수세계박람회범불교위원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가 후원한다. (062)383-6322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불국토를 찾아서

광주광역시 동구청 불자회

"시민에게 회향하는 마음이 중요"

광주시 동구는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끼고 있다. 이런 연유로 동구는 증심사, 원효사, 문빈정사, 원각사 등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전통 사찰들이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일까. 동구는 광주에서도 유독 불심이 깊은 곳으로 소문났다.

광주 제일의 불심을 자랑하는 동구의 동구청불자회(회장 박찬상) 역시 다른 지역 공무원 불자회 이상의 불심을 자랑한다.

왼쪽부터 정운천 간사, 노정순 재무, 박찬상 회장, 노기욱 총무.

동구청불자회는 2005년 5월 무등 스님(천룡사 주지)을 지도법사로, 이종현 초대회장을 비롯한 회원 45명과 400여 불교계 인사, 불교신행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됐다.

동구청불자회는 회원들의 신앙심 고취와 화합을 바탕으로 구청발전,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로 설립, 월 2회 법회와 하계수련법회, 불교교리 공부, 사찰예절, 회원간 화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의 인도중국불교사 강연과 무등 스님의 <천수경> <목련경> 강좌는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반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만, 불교역사에 대해 심도 있는 법문을 듣지 못했었습니다. 불자회에서 마련한 불교사 공부는 불교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찬상 동구청불자회장은 뒤늦게 시작한 불교공부에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동구청불자회 활성화'가 화두라는 박 회장은 "업무로 인해 평소 많은 사람을 만나 음주를 하는 편이지만, 수요일만큼은 법회에 참석해 부처님 말씀에 푹 빠진다"고 한다.

박 회장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한 만큼 올해는 독거노인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더욱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동구청불자회는 관내 사찰과 연합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실천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영 · 호남 교류와 소외계층을 위한 교차지원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노기욱 총무는 "5년간 부처님 오신날이면 동구불교협의회와 연대해 자비의 떡 나누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비의 떡 나누기 등을 확대해 불법홍포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간사는 "하계수련회의 활성화를 통해 회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갖고, 바쁜 공무에 시달리는 회원들의 마음을 정돈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계수련대회는 땅끝 마을 해남 미황사에서 개최된다.

수련대회에는 초심자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신앙체험, 사찰문화체험 등을 더해 한단계 도약하는 단체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동구청불자회는 특히 동구지역 사찰에서 독거노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사업들과 연대해 시민에게 회향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공무원불자들의 역할임을 다짐했다.

'1인 1포교' '시민에게 회향'하는 불자회를 위한 회원들의 큰 활동을 기대해 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다문화'가 화두다

심향사, 이주민아동 템플스테이 및 음악회 개최

비단고을지혜나눔사랑회는 3월 13~14일 심향사 경내에서 이주민 아동 문화체험 및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플루트 앙상블 공연은 다문화가족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나주 심향사와 비단고을지혜나눔사랑회(대표 원광 · 심향사 주지)가 3월 13~14일 심향사 경내에서 '이주민아동 문화체험' 템플스테이 및 음악회를 개최했다.

30여 다문화가족 어린이가 참여한 행사에는 등 만들기, 종명상, 음악회에 이어 전래놀이, 다도, 개인 화분 만들기, 전통문양 그리기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원광 스님은 "심향사가 최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주민아동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통문화체험과 클래식 음악을 체험하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에 달하고 결혼하는 10쌍의 부부 중 1쌍은 국제결혼이다. 21세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화두는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사에서는 템플스테이 참여 아이들의 부모와 사찰신도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봄날의 꿈' 플루트 앙상블 음악회가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인 이수지 양(영산포 초등3학년)은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참여하게 돼 즐거웠다. 특히 처음 들어보는 플루트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소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음악회를 후원한 무지크바우(대표 조기홍) 관계자는 "앞으로 두 달에 한번씩 심향사에서 클래식 음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 이해 위한 '수행' 눈길

승가원 직원들, 금산사서 템플스테이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실무자들이 3월 18~19일 금산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발우공양을 하고 있다.

불교계 대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실무자들의 불교 이해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어 눈길을 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 태원)은 3월 18~19일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에서 '제1회 승가원 직원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 동참한 70여 승가원 직원들은 사찰예절 습의와 예불, 발우공양, 108배 등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문화재 해설, 사찰순례, 스님과의 대화, 염주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도반부처께 절하기, 주지스님 법문, 참선,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

승가원은 "승가원 직원들이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더욱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워 장애가족, 후원가족, 이용자 모든 분들께 더 큰 행복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 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의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포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 입니다.

◆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 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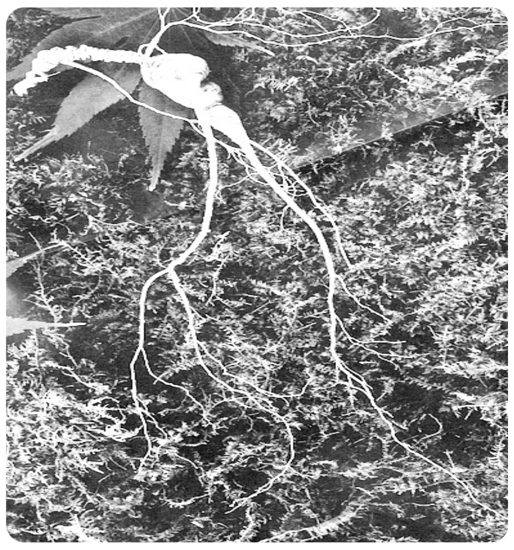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4-1호
전화 010-7344-1881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께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년,120년 외 자연 산삼 보유. (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의상담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심 마 당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검정필 (분석 51160-150)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